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재부, 2009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 마련

-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음.
 - 이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였음.
-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구조조정기금은 기금채 등 차입금 형태로 총 20.2조원이 조성되었으며, 실제 운용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.
 - 실제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자산 매입소요,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며,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임.
 - 지출계획으로는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총 20조원을 사용할 계획임.
 - 이러한 ‘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’은 국회를 거쳐 금융권의 PF 부실채권(4.7조원)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운항 중인 선박(1조원)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수 추진 계획임.
- 향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유도하며,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·정리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방침임.
 - 특히 과거 외환위기 시 구조조정기업의 보유 자산을 인수·정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고려해 볼 때, 금번 구조조정기금 활용은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(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(안) 주요내용,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, 기금운용계획과, 5/19)